

'90년도 美國 석유업계 호황

- '90년 美國 22개 석유회사 경영실적 -

- 석유협회 홍보실 -

美國의 석유업계가 지난해에 中東사태에 따른 유가상승등에 힘입어 호황을 기록했다.

Oil and Gas Journal誌에 따르면 엑슨등 美國의 22개 석유회사들은 '90년대 총 2백13억달러의 순익을 올려 전년대비 14.1%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호황은 '89년의 12% 순익감소로부터 반전된 것으로 주목할만 하다.

BP를 제외한 美國의 21개 석유회사들의 지난해 총수입은 총 4천6백43억달러로 전년대비 18.3%가 증가했다. 이같은 美國 석유업계의 호황은 주로 지난해 中東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유가상승은 특히 상류부문의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하류부문에서는 유가상승으로 원가상승을 가져왔다. 美國의 경우 제품가격 상승이 원가상승에 미치지 못해 하류부문의 수익은 감소했다. 그러나 美國 이외의 지역에서는 정제 및 판매부문의 수익이 호조를 보였다.

상류부문의 수익증가는 하반기 유가급등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해 국제유가는 상반기중에 배럴당 16.33달러이던 것이 하반기에는 中東사태의 여파로 26.37달러로 급등, 전년대비 57%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美國의 원유생산 침체로 美國內 상류부문의 수익증대는 극대화되지 못했다. 지난해 美國內의 원유생산은 7백30만 B/D로 전년대비 4.1% 감소했다.

그러나 해외상류부문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유가상승에 힘입어 해외에서의 석유개발과 생산이 확대되면서 순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90년 해외상류부문의 순익규모를 보면 엑슨은 27억7천8백만달러(전년대비 44.3% 증가), 모빌은 13억9천9백만달러, 셰브론 7억7천1백만달러, 텍사코 5억3천2백만달러, 필립스 3억6천3백만달러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美國內 하류부문의 영업실적은 상류부문과는 달리 대부분 회사들이 '90년 하반기 순익이 전년동기에 비해 저조했다. 그러나 상반기의 호황에

'90년 美國 석유회사 경영실적

(단위 : 백만달러)

	순익		수입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엑슨	5,010	42.7	117,079	21.6
B P (美國 현지법인)	2,631	20.2	-	-
세브론	2,157	759.4	42,566	29.8
아코	2,011	3.0	18,808	17.4
모빌	1,928	6.6	64,244	14.3
아모코	1,913	18.8	31,592	18.1
텍사코	1,450	▲39.9	41,822	17.3
U S X	1,138	15.3	14,616	19.2
코노코	1,078	100.4	15,976	29.7
셀	1,036	▲26.3	24,790	12.9
필립스	779	255.7	13,975	11.9
아메라다 헤스	483	1.3	7,081	24.7
유노칼	401	54.2	11,808	4.0
선	229	133.7	13,380	17.6
코스탈	226	32.6	9,381	13.4
케르·맥기	150	▲3.7	3,683	22.8
아메리칸 페트로피나	126	5.4	3,978	31.0
머피	114	144.4	2,137	26.9
펜즈 오일	94	▲9.4	2,367	1.6
루이지애너 랜드 앤드	55	24.5	885	16.9
익스플로레이션				
에시랜드	11	▲148.9	2,419	11.2
옥시덴탈	1,695	▲694.7	21,694	8.1
합	21,302	14.1	464,280	18.3

힘입어 연간 전체로는 순익증가를 시현했다. 공해방지비용지출의 확대가 '90년 순익을 압박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하류부문과는 달리 해외 하류부문은 호조를 보였다. 엑슨은 지난해 해외하류부문에서 12억3천

9백만달러의 순익을 거두었고, 모빌은 5억3천3백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세브론은 지난해 하류부문에서 3억8천7백만달러의 순익을 올렸고, 텍사코는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3억7천4백만달러의 순익을 기록했다. ♠

재해 후에 울지말고
우리모두 사전예방